월요광장

지자체의 경쟁력은 신뢰다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개인에게든 조직에든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에 이뤄지는 모든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신뢰'이다. 신뢰가 높은 조직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팀워크가 좋아진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뢰 기반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신뢰는 상품과 서비스 등 각종 거래를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인간관계도 신뢰가 없으면 장기적·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개인 간은 물론 조직 간 행동에서 신뢰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없을 것이다.

공자는 국가 경영의 요체로 군사력·경제력·신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하지만,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공자는 부득이하게 이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군사력을, 또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경제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는 국가나 사회 시스템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 주체 간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신뢰가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 내 재정 투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켰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아 있다.

제2순환도로 소송,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불신과 법적 다툼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툼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역에 대한 불신은 남을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함께 진행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열한 비즈니스 전장에서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신뢰는 장기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많은 의사 결정은 본질적으로 단기 혹은 장기적 이익 중 하나를 극대화하려는 동인을 가지고 있다. 신뢰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신뢰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준다.

문제는 지자체 단체장이 자주 바뀌고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그 관계의 대상이 지자체이지 지자체 단체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임기 내에 단기적 이익을 통해 본인의 성과와 연결 지으려는 단체장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단체장이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될 것이다.

10개의 약속을 하고 5개를 실천하는 리더보다 3개를 약속하고 3개를 실천하는 리더가 더 신뢰가 간다.

지자체는 약속에 인색해야 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의 신뢰 자산이 될 수 있다. 위기를 오히려 신뢰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조칼럼

재판하지 않는 판사

전 일 호
광주지법 기획법관·공보판사

판사의 기본 업무는 재판이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과 같이 귀에 익숙한 재판부터 인신보호, 증거보전, 과태료 같은 생소한 재판까지 모두 판사가 처리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본 업무가 재판이 아니라 '기획·공보'인 판사가 있다. 바로 기획법관·공보판사이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규모가 큰 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기획법관과 공보판사를 겸한다. 필자는 2015년에 광주고등법원의 기획법관 겸 공보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광주지방법원의 기획법관 겸 공보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기획법관은 법원장의 사법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 준비한다. 대법원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각종 계획안·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전국 모든 법원이 참여하는 세미나·포럼·법관연수 등이 열릴 경우 참석할 판사를 섭외하고 토론 주제에 관한 소속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달한다. 법원장 업무보고 시에는 대법원에, 국정감사 때는 국회에 소속 법원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단위로 모집하는 재판연구원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펼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진행해 나간다.

물론 사법행정의 주체는 법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모든 업무는 법원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기획법관이 총무과 담당직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1년간 광주고등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중 광주고등법원 관내 법원을 대상으로 재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원들이 소재한 전남·북과 제주를 오간 것, 그리고 30년5개월 동안 호남에서만 근무하다가 노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원에 모시고 퇴임한 방극성 광주고등법원장의 퇴임식을 치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공보판사는 법원의 '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줌으로써 법원과 재판에 관하여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공보판사의 기본 업무이다.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판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끔은 한 법원에서도 동일 사안에 관하여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거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담당 판사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별 사건의 차이와 판결문 이면에 숨어 있는 판결이유를 물어보고 이를 기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해 준다. 기자들이 취재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적 평가를 해주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것도 공보판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2015년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울컥하여 판결선고를 이어가지 못할 때 필자도 법정 맨 뒤에서 재판장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어 함께 울컥하면서도 기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였다. 판결 선고 후에는 공보판사로서 처음으로 법정에 모인 기자들에게 항소심 판결의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였고, 어색하고 긴장된 자세로 난생 처음 방송인터뷰를 하였다.

결국 기획법관·공보판사의 업무는 법원장의 지휘 아래 판사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판결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법원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할 때 법복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서 "내년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 법복을 다시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곤 했다. 개인적인 기대와는 달리 2016년에도 광주지방법원에서 기획·공보업무를 하게 되었지만 그 업무의 필요성을 잘 알기에 올 한해에도 열심히 해 보자고 다짐해본다.

기 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광주의 미래다

최 명 기
동신대학교 교수

지금은 바야흐로 대학의 졸업시즌이다. 그러나, 대학문을 나서는 대부분 졸업생은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여전히 분주하다. 기업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기존 노동시장은 신규 채용할 여력이 크지 않아 바늘문과 같은 취업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좁게만 느껴진다.

지난해 고용률은 60.3%이며, 이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청년 실업률은 7.1%로 2014년 2.7%였던 것에 비해 4.4% 포인트가 급상승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마련이라는 심적 고통 속에서 희망없는 오늘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젊은 청년층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와 연계하여 지역청년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절호의 기회와 희망이 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에서도 4월에 심사예정인 예비타당성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기원한다.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은 동북아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서해안 자동차벨트구축은 향후 자동차산업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 친환경차 생산 인프라를 갖춘 광주시가 있다. 자동차산업은 광주시 생산액의 30%,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서, 2013년 기준 연산 62만대 생산라인으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도시로서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광주시만의 지역사업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사업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생산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4600억원, 고용창출 1만1500명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생산 7940억원(전국대비 53%), 부가가치 2360억원(전국대비 51%), 고용창출 7145명(전국대비 62%)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의 틀을 기반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준비해 고용안정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지향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는 광주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 국가적으로 정부가 풀어내야 할 숙제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광주에서 3차례 공약을 했을 정도로 현 정부 역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적게는 4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는 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제조업 근간을 바꿀 수 있는'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6년은 광주시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원년을 맞아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현안들이 시작되는 해이다. 광주시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대통령 핵심 추진 사업인 노동개혁의 성공모델 확보로 고용률 70% 달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담보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향후 정부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社 說

혈세 들여 만든 산단에 놀고 있는 땅 많다니

전남 일선 시·군 산업단지(산단)에 놀고 있는 땅이 많다고 한다. 기업 유치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너도나도 산단을 조성했지만 정작 텅 비어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전체 분양률이 절반이 되지 않으면 '부진 산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목포 대양산단, 나주 혁신산단, 장흥 바이오산단, 강진 환경산단, 영광 대마산단 등 5곳이 이에 해당된다. 분양 실적이 낮은 목포 세라믹산단, 담양산단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84%까지 분양률을 끌어올린 동함평산단은 다행히 제외됐다.

시·군 산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물론 경기 침체 탓이다. 전남은 접근성마저 떨어져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경기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산단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유다.

산단이 애물단지가 된 것은 사전에 수요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내다보고 전체 규모나 특성화 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단체장들이 치적용으로만 삼으려 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 된 만큼 이젠 한 뼘이라도 더 분양 면적을 늘리기 위해 뛰어야 할 시점이다.

뒤늦게 일선 시·군이 '눈물의 세일'에 나섰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하거나, 1부서 1기업 유치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전남도도 권역별 향우 기업 초청 및 현지 방문 등을 추진하면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혈세를 들여 애써 조성한 산단의 가동률이 낮고 놀고 있는 땅이 많은 현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와 시·군은 수도권 이전 기업, 해외에서 돌아오는 U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그만 틈새라도 확보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억울한 죽음 없도록

15년 전인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 A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12년 대검찰청 DNA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 모(39·당시 24세) 씨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DNA 이외의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씨마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나주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재수사해 '용의자의 진술 번복과 통신 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재송치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장기 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 2009년 발생한 광양 주차장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광양시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A(여·당시 43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역시 끝내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과 검찰이 최근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사 등을 감안해 해당 살인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검토, 전면 재수사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미제로 남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살인죄 미제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한을 남겨 놓는다. 자신의 가족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살인범을 단죄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든 거야."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드라마 '시그널'의 포스터에 나오는 짧은 문구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 드라마 역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세포이 항쟁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3·1운동을 떠올린다. 3·1운동은 전 민족이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독립운동이다. 3·1운동은 독립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에서 발생한 민족적 항쟁인 세포이 항쟁(1857~1859년)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발했다. 물론 영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지만 직접적인 항쟁 원인은 영국의 인도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세포이는 영국 동인도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을 이르는 말이다. 당시 영국군은 세포이 24만 명에, 유럽인 4만 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었다.

영국은 세포이에게 신형 총을 공급했는데, 이 총은 총알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된 탄약통을 사용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 총에 탄약통을 장전하려면 탄약통을 입으로 뜯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탄약통에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지 돼지와 소의 기름이 묻어 있었다.

인도인은 대부분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데,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와 소고기를 금기시하는 힌두교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며 두 종교의 세포들이 일어선 것이다. 심지어 소·돼지 기름이 칠해진 것을 놓고, 영국이 인도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떠돌았다.

세포이 항쟁은 결국 군대 안의 반란이 인도 전역의 독립투쟁으로 확대돼 일어난 것이다. 영국의 인도 지배 이후 100년 만에 행해진 인도 독립운동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2015년 우리나라 외국인은 170만 명을 넘어서 무려 전체 인구의 3.4%에 달했다. 광주·전남도 다문화가정이 10만 명에 이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다문화 주부들이 수확한 방울토마토나 피망 등 야채를 먹고 있으며, 심지어 쌀농사도 그네들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된 이주 여성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좋아요' 얻으려 엽기 행동…'페북 스타' 뭐길래

지난해 미국에서는 10대 소녀들이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말다툼으로 난투극을 벌이다가 한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광주에서도 한 학생이 일명 '페북스타'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른바 '현피'다.

페이스북에서 종종 '현피' 동영상을 접한다. SNS에서 유명세를 탄 이용자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그 이유를 들어 직접 찾아가 폭행을 자행한다. 그리고 그 장면을 자랑스레 게시한다.

또는 '공약'을 걸고 무모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머리나 눈썹을 미는 것은 애교다. '좋아요'가 일정 건수를 넘어가면 자동차 아래 누워 다리를 밟고 지나가거나, 오물을 먹거나 얼굴에 바르고, 친구 머리에 불을 붙이는 일도 벌어진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방송출연 없이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SNS다. 그리고 곧 반응, 즉 '좋아요'에 집착한다. 점점 무리하기 시작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소셜포비아'가 떠오른다. SNS에서 내가 단 댓글은 누군가에겐 '칼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 무심코 엄지손가락을 가져가기 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에 집착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나영·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